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3

Manna of Choonghyun

총현의 만나

가정예배
오키 · 사도행전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총회
총회총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십자가와 부활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사도행전 11장 ~ 사도행전 12장
- 12 1과 성경의 마지막 기도
- 20 매일성경묵상 사도행전 13장 ~ 사도행전 18장
- 28 2과 예수님께 말하라
- 36 매일성경묵상 사도행전 19장 ~ 사도행전 24장
- 44 3과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 52 매일성경묵상 사도행전 25장 ~ 사도행전 28장
 욥기 22장 ~ 욥기 23장
- 60 4과 승리의 입성
- 68 매일성경묵상 욥기 24장 ~ 욥기 29장
- 76 5과 부활의 날

3 March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제2차 성찬식	4 사도행전 13장	5 사도행전 14장	6 사도행전 15장
10	11 사도행전 19장	12 사도행전 20장	13 사도행전 21장
17	18 사도행전 25장	19 사도행전 26장	20 사도행전 27장
24 총려주일(기독교연합예배)	25 욥기 24장	26 욥기 25장	27 욥기 26장
31 부활주일(특별찬양예배)			

April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사도행전 11장	2 사도행전 12장
7 사도행전 16장	8 사도행전 17장	9 사도행전 18장
14 사도행전 22장	15 사도행전 23장	16 사도행전 24장
21 사도행전 28장	22 욥기 22장	23 욥기 23장
28 욥기 27장	29 욥기 28장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30 욥기 29장

교회 주요 일정

2월 13일~3월30일

사순절

2월 13일~3월24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월 3일

제2차 성찬식

3월 24일

종려주일(가족연합예배)
공동의회

3월 25일~29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9일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3월 31일

부활주일(특별찬양예배)

나의 주요 일정

- ❶ 사순절기(2.13~3.30)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❷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❸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❺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❻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❼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❽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❾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❿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역사는
오직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내어 놓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리는 부활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2013년 3월을 맞이하여 위일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1

금요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

사도행전 11장
찬송가 183장

복상노트

베드로는 종교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9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 곧 ‘생명 얻는 회개’였습니다(18절). 이 회개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중생(거듭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각과 능력 따위로 형성되고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고 신비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생명 가운데 거하여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진실되어 회개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이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회개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누리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 할례자(2절) : ‘할례당’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입교한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세 율법에 충실하여 할례의식을 비롯하여 기타 정결례 등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 11:18)

When they heard this,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and praised God, saying, “So then, God has granted even the Gentiles repentance unto life.” (Ac. 11:18)

기도제목

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2.13-3.30)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의 흥왕

2

토요일

당시 유대인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도 야고보를 살해하고 맙니다(1~2절). 제다가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고 교회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여 갔습니다(4~5절).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5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어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들과 재회하게 하셨습니다(6~16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23절). 그리고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이자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해 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핍박과 좌절, 역경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흔들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며,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큰 성 바벨론’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데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제2의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흥왕하여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행 12:24)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Ac. 12:24)

사도행전 12장

찬송가 210장

묵상노트

• 헤롯 왕(1절) : 헤롯 대왕(마 27~19)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를 가리킨다. 골라우디오를 도와 그가 황제로 추대 받는 일에 공헌함으로 A.D. 37~44년까지 유다의 분봉왕으로 재위하였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여 참된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②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과 같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겪게 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깊게 하소서.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도 가운데 보게 하셔서
모든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순절 기도문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 주일

4 월요일 ☐ 사도행전 13장5 화요일 ☐ 사도행전 14장6 수요일 ☐ 사도행전 15장7 목요일 ☐ 사도행전 16장8 금요일 ☐ 사도행전 17장9 토요일 ☐ 사도행전 18장

1

성경의 마지막 기도

Last Prayer In The Bible

| 초점 |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곧 오신다

| 찬송 |

찬송가 239장 저 뵈는 본향 집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장은 마지막 세 가지의 일로 끝이 납니다. 첫째, 마지막 초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성령과 신부와 누구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부르는 이 초대의 합창은 잃어버린 죄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약속이 뒤따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 22:20).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분명하고 사실적인 마지막 선언은 우리를 순결한 삶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인 “아멘 주 예수여 오 시옵소서”는 마지막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세 가지의 일을 정리해 보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가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입술로 간절하게 드리는 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요한은 즉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과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업, 휴가 계획, 또는 가족의 이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였습니다.

※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눅 24:25~27

마 24:42,44

고전 15:51~52

우리의 계획들이 필요 없게 된다

조만간 우리의 계획들은 아름답게 중단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계획을 세우는 데 분주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계획이 취소된다 하여도 개의치 않을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 지금 나는 어떤 계획들로 인해 분주합니까?

그 계획은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계획한 일에 있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참된 신자들에게 아름다운 종단을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며 놀랍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예수님의 오심이 두렵습니까?
-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 바라보고픈 열망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 현실적인 목적이 예수님보다 더 좋습니까?
-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까?
-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 4:13~15

예수님을 곧 만난다

곧, 이제 곧, 우리는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놀라운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뵈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요 20:28

시 73:25~26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 16:24 _____

요일 2: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전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직업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목사님 _____

성도님 _____

교회명 _____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4

월요일

하나님 나라와 죄 사함

사도행전 13장
찬송가 261장

묵상노트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9절).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맛있는 안식일에 회당에서의 그의 설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복음 설교의 전형이라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3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38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근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동시에 그 어떠한 의와 선도 없는 무능과 부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어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받게 되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 **엘루마(8절)** : 아라비아어로 ‘지혜 있는 자’란 뜻이며, ‘박수’, ‘마술사’의 동의어이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were glad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Ac. 13:48)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 앞에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5

화요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목적인 이고니온을 향해 나아갑니다(행 13:51). 특별히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역에는 서로 상반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신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도 있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핍박과 박해도 따라옴을 볼 수 있습니다(1~6절).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 속에 나면 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 주는데(7~10절),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졸지에 신으로 떠받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11~18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 일행의 복음사역에 악감을 품고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 거반 죽게 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19~20절). 아프고 괴롭고 곤고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그를 괴롭혔으나 바울은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21~22절).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지는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의 영광 누림을 신앙의 열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전도 사역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열매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잔이며 자기 자신을 부언해야 하는 회개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행 14:22)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said (Ac. 14:22)

사도행전 14장

찬송가 459장

묵상노트

• 제우스, 헤르메스(12절)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으로서 올림포스 산 위에서 신들을 총괄하는 신이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신탁 전달자, 또는 운변의 신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라와 율법

사도행전 15장
찬송가 287장

묵상노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 공로로만 확정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1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인간의 행위와 어떤 태도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은혜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인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두 성경적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이 두 주제의 어느 하나를 애써 간과하거나 배제하려는 경향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의 죄인 됨이 얼마나 크고 패역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율법은 율법의 입법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구원자시요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 사도행(14절) :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의 히브리어의 형태인데, 보다 친근감을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 15:11)
No!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Ac. 15:11)

기도제목

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의 오심

7

목요일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다옥’, 그곳을 거쳐 ‘드로아’와 ‘네압볼리’, 마지막으로 ‘빌립보’ 등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가장 귀한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알게 된 것입니다(1~3절).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상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14절). 또한 그곳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16~18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발미가 되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고 말지만(19~24절),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영적 열매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의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25~34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 확장과 성장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해 ‘확장’ 이기보다 ‘오심’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초월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값없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람들을 도구 삼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찬송가 304장

묵상노트

• **규례(4절)**: 헬라어 ‘도그마타’로서 ‘의견을 제시하다’, ‘제정’, ‘공식적인 법령’ 등의 의미를 지닌다. 후에 기독교 ‘교리’를 나타내는 ‘도그마’(dogma)로 사용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 16:31)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you and your household." (Ac. 16:31)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두 모습

사도행전 17장
찬송가 524장

묵상노트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전도 사역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에 매인 삶이었습니다. 16장에 이어 바울의 제2차 전도 사역이 계속 해서 이어집니다. 빌립보를 지나 암비볼리에 이르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뢰아와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강령은 단순하리만치 분명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2~3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늘 두 상황이 공존하곤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유럽 전도는 가는 곳마다 ‘환영’과 ‘반대’라는 두 상황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많은 귀부인들은 바울의 권함을 받고 말씀을 따랐습니다(4절).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불량배를 동원하여 그의 전도 사역을 저지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5절). 그들의 심령은 굳어짐 그 자체였습니다. 결코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두 상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회개와 자복함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완악하고 교만하며 거만하고 외식적으로 그 복음을 훼방하고 반대함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 에피쿠로스(18절) : 에피쿠로스가 창설한 학파로서 신적 존재를 말하긴 하지만 신의 섭리나 초자연성을 거부하는 무신론 학파에 가깝다. 인간의 영혼도 물질로 구성되었고 죽으면 소멸된다고 보는 유물론적 사상이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행 17:3)

explaining and proving that the Christ had to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This Jesus I am proclaiming to you is the Christ,” he said. (Ac. 17:3)

기도제목

- 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의 백성

9

토요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에베소', 그 다음으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안디옥'을 순회하며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절에 이르러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곧이어 제3차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를 위해 쉬지 않고 자신의 맡은 전도 사역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사역은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투철하고 강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순회하면서 개척한 교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끓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룬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고전 2:2).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전도 사역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갖은 고난과 핍박이 그의 전도 사역에 준비하게 일어났고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는 그에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나아갈 것을 격려하셨습니다(9~10절). 우리가 전도 사역을 통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과 초조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10절).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아니하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아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행 18:10)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Ac. 18:10)

사도행전 18장
찬송가 519장

묵상노트

• 권면히니라(4절): 헬라어 '에페이덴'으로서, '설교'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의 의미를 지닌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만을 증거케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죄인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죄인, 십자가에 온전히 죽길 원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진실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곤핍한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세상살이로 고달프고 힘들지만 흠어진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온갖 악의 유혹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이 죄인을 붙들어 주소서. 아멘.

라병순(집사, 4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0 주일

11 월요일

☐ 사도행전 19장

12 화요일

☐ 사도행전 20장

13 수요일

☐ 사도행전 21장

14 목요일

☐ 사도행전 22장

15 금요일

☐ 사도행전 23장

16 토요일

☐ 사도행전 24장

2

예수님께 말하라

Tell Jesus

| 초점 |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 찬송 |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본문 | 마가복음 1:29-39

²⁹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³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³¹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³²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³³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³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³⁵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³⁶ 시몬과 밋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³⁷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³⁸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³⁹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날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 중요하지 않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으며, 예수님은 이에 앞서 회당에 있던 한 사람 안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 8:14~15 _____

막 1:23~26 _____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식은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 날 저녁에 문제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저물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막 1:32~34).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말씀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눅 5:1~7).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눅 5:8~9 _____

막 1:17~18 _____

눅 5:11 _____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다. 예수님이 그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은 그가 자신의 가족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직을 버리기로 결정한 후 떠나기에 앞서 예수님께 가족들을 소개하고자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 베드로가 가족의 후원을 얻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대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이 상황을 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막 1:29~30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휼하심이 넘쳐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요 20:31

요일 5:13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막 1:31).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눅 4:39 _____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 받은 후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여인은 불평하거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이 필요했고, 그 여인은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 주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 주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잘 듣고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막 12:33 _____

여러분은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길은 대부분 실패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은 항상 밀려오지만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올 때 예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주시는 예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요 14:6 _____

빌 4:6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말하게 하소서.
- 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계산

사도행전 19장
찬송가 50장

묵상노트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어 지금까지 성령을 알지도 못한 채 신앙 생활을 해 오던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점은 놀랍습니다(1~7절).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유대 마술사들이 당하는 곤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에베소 지방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8~22절). 반면 우상 숭배자들이 흥왕해 가는 교회의 확장을 방해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내용입니다(23~41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보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가치만도 은 오만 드라크마에 해당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로서 계산하여 드린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이 내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 예식에 익숙해지고 여유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 자복하여(18절) :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든 흉금을 다 털어놓아 깨끗하게 빛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행 19:19)

A number who had practiced sorcery brought their scrolls together and burned them publicly. When they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crolls, the total came to fifty thousand drachmas. (Ac. 19:19)

기도제목

① 나의 믿음과 생명 전부를 주를 위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참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의 사명

12

화요일

에베소서의 소요 사태가 그치자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순회한 후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1~6절).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공모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3절). 그럼에도 바울의 전도 열정과 복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3년간 정성스레 사역하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의 복음에 대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고별 설교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는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명자들은 당대의 살벌한 핍박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치 복음에 미친 자처럼 말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온전히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복음의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준비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손길이 바로 오늘 나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찬송가 349장

묵상노트

• **감독자(28절)** : '장로'와 동의어이다. 장로는 신분을 말하고 감독은 직책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목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말은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 목자의 임무를 가리킨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Ac. 20:24)

기도제목

기도노트

- 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지기를 부안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

사도행전 21장
찬송가 430장

묵상노트

많은 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바울을 제지했습니다(4,11절).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그는 아무런 대책 없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 당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신적 강제력에 의해 그는 지금 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과연 그분의 뜻일까요? 아니면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고민에 휩싸입니다. 모든 인간은 만사가 형통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상의 평탄함을 극도로 선호합니다. 반면에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고통 등은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나 쉽게 그 길을 외면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단정 짓기 일쑤 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에 너무나 쉽게 져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자의 믿음의 태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에 있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드러나는 영광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14절). 넓은 길을 거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주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천부장(31절) : 보병 760명과 기병 240명을 거느리는 로마군의 장교이다. 이때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가리킨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행 21:13)

Then Paul answered,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Ac. 21:13)

기도제목

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와 바울

14

목요일

과거의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3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롬 11:1; 고후 11:22).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당대의 유능한 교육, 즉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투철한 열심을 지니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가차 없이 결박하여 죽이는 일을 도맡아 왔던 인물이었습니다(4절). 이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맹종에 가까운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전 유대교 종교에 매몰되었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죽임의 자리로 내몬 자였으나,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움 받았음을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죄인이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14~15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을 즐겨 쓰곤 합니다(롬 1:1; 갈 1:10; 빌 1:1; 딤후 1:1 등). 이 문구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그 나라의 복음에 매인 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겼던 복음의 일꾼, 바로 그가 바울이었고 나아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빌 1:20~21).

사도행전 22장
찬송가 461장

묵상노트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행 22:15)
You will be his witness to all men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Ac. 22:15)

• 변명(1절) : 헬라어 '아폴로기아스', 뜻으로는 '자신을 변호하다', '방어하다'의 의미이다. 자신의 행위와 생명을 방어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사도행전 23장
찬송가 510장

묵상노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약한 사람이 무려 수십여 명이나 되었습니다(12~13절). 이들의 바울 살해 계획은 상당히 치밀했고 주도면밀했습니다. 음모와 매복 속에 그들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열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바울은 바울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열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만 매진하고 충직스럽게 섬겼습니다. 목숨을 내건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심과 그를 죽이기 위해 모락을 꾸미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심은 단지 바울 자신의 열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를 열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하였습니다(11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세상적 가치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물질적 안락함과 세속적 가치들에 점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육적 열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십시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 영지(34절) : 헬라어 '에파르키아'인 '통치하다'란 뜻의 '아르코'와 '에'란 뜻의 전치사 '에피'의 합성어이다. 즉 '통치권이 미치는 곳'의 의미이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행 23:11)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near Paul and said, "Take courage!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Ac. 23:11)

기도제목

- 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고한 믿음과 불붙는 열정을 허락하옵소서.
-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16

토요일

세 부류의 삶을 묵도하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경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류는 벨릭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의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하여 의와 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저주의 늪으로 내던져 버린 자들입니다. 셋째는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삶입니다. 그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말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였습니다. 목숨을 위해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과 따르다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과 삶은 함께 있는 개념이고 더불어 언급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바르게 반영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벨릭스로 대변되는 자들의 삶은 결코 정당하고 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교만과 외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색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십자가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고 불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 최악의 삶이며 심판과 저주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뿐임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찬송가 338장

묵상노트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행 24:16)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 (Ac. 24:16)

• 도(22절) : 기독교를 가리킨 총독 벨릭스가 이미 기독교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의미함.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삶

성경의 언약①

언약(Covenant)이란 문자 그대로 두 주체가 쌍방 간에 맺은 약속이다. 단,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말한다. 성경의 여러 언약들은 표면적으로는 시대와 인물에 따라 각각 다양하고 단편적인 것 같지만,

홍수 이전의 언약

구약의 언약

명 칭	체결자	내 용
선약과 언약 (창 2:16~17)	범죄 이전의 최초의 인류이자 대표인 아담과 하와	선약을 알게 하는 나木の 열매를 먹지 말라 이를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언약(창 3:15)	타락 후 모든 인류의 대표이며 선조인 아담과 하와	한 완전한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지개 언약 (창 9:8~17)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 및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	다시는 땅 위의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헛불 언약 (창 15:9~21)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할례 언약 (창 17:1~22)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시내 산 언약 (출 19~24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근본 목적과 본질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간 구속의 언약이다. 따라서 성경의 언약을 한 자리에 모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각 시대에,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로 연속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언약은 크게 보면 인간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과 이후의 은혜 언약으로 구분된다. 은혜 언약은 다시 예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한 희생 사역을 위해 초림하실 것을 약속한 옛 언약, 곧 구약(Old Testament)과 초림 후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구속을 최종 실현하시기 위해서, 즉 천국을 최종 도래시키기 위하여 새로 주신 새 언약, 곧 신약(New Testa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 미	특 징
하나님의 법의 첫 표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축복과 영생이, 불순종할 때에는 죽음이 주어짐을 의미	• 타락 전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 • 첫 사람 아담은 이 언약에 실패함 •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고전 15:45, 48~49) • 쌍무 언약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뱀으로 상징된 사탄을 멸하실 것임(마 1:16~21 ; 갈 4:4 ; 계 12:9)	• 타락 후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 • 일명 원시 복음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 • 편무 언약
인간의 근본적인 언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물)로 인간과 생물들을 심판치 않겠다는 보편적 의지 표명	• 여타 언약과 달리 일반 은총의 언약 •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심 • 편무 언약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하늘의 씨지 않을 기업, 즉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암시(갈 3:9 ; 엡 1:3 ; 벧전 1:4)	• 하나님께서 햇불 모양의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 언약하심 •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분깃을 상징 • 편무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옛 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됨을 암시(골 2:11)	• 내적 믿음에 대한 외적 증거의 요구(롬 4:11) • 신약의 세례와 유사 • 쌍무 언약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상호관계가 사랑과 공의 가운데 맺어짐을 나타냄	•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출 32:1~20) • 율법에 근거해 맺은 최초의 쌍무 언약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7 주일

18 월요일

☐ 사도행전 25장

19 화요일

☐ 사도행전 26장

20 수요일

☐ 사도행전 27장

21 목요일

☐ 사도행전 28장

22 금요일

☐ 욥기 23장

23 토요일

☐ 욥기 23장

3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Faith Casts Out Fear

| 초점 |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본문 | 마가복음 5:35~43

³⁵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하 ³⁶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³⁷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³⁸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³⁹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⁴⁰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⁴¹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기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⁴²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⁴³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3년 반의 사역 중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인 성 과부의 외아들(눅 7:11~17), 자신의 친구 나사로(요 11:38~44) 그리고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가지 기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로는 유명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막 5:22~23). 이 유명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갔으리라”(눅 8:41~42).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아이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막 5:24). 예수님은 즉시 아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 예수님께서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5:32~34

여인을 고치는 일로 인해 예수님이 잠시 지체하고 계실 때, 아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막 5:35).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방문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체하셨습니다(요 11:6,15). 주님의 도착 지연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더욱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로에게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충격과 슬픔에 젖은 아이로에게 몸을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막 5:36).

막 5:39~40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깊은 긍휼하심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곡하는 무리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쫓아 내셨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서만 존경합니까?
-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부요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분입니까?

※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보십시오.

요 1:1,14 _____

야이로의 친구들, 이웃들과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는 존경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롬 8:18 _____

빌 1:21 _____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나사로와 나인 성 과부의 아들, 나이가 자기 자신까지 살리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드러내셨다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냅니다.

막 5:42~43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물론 자기 자신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눅 24:34).

※ 예수님이 아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엡 2:1

요일 3:2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 보낸다는 것이 단순한 진리임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해 볼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벧전 5:9 _____

요일 5: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8월 15일 - 8월 15일

81

8월 15일

8월 15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몸부림

사도행전 25장
찬송가 336장

묵상노트

유대의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해 옵니다. 그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찾아오는 대체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게 됩니다(2절). 그들은 이송 중인 바울을 매복하여 죽이고자 했으나(3절) 베스도는 자기가 곧 가이사라로 갈 것이니 유대인들이 그러로 와서 재판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합니다(4~5절). 재판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또다시 재판을 받게 하고자 했으나,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직접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옹고 그릇을 판단 받고자 했고 결국 그는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갈등과 변민이 끊이지 않았습다. 세상은 그를 가만 놓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낙심과 고난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적 몸부림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갑니다. 끊임없는 영적 변민과 갈등, 좌절과 실패, 그리고 절망과 고독이 참 신자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자는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예수라 하는 이(19절) : '예수'라는 사나이'라는 의미. 곧 이는 예수를 국도로 경멸하는 표현이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행 25:19)

Instead, they had some points of dispute with him about their own religion and about a dead man named Jesus who Paul claimed was alive. (Ac. 25:19)

기도제목

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심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19

화요일

아그립바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복음 증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으로부터 변호의 기회를 얻습니다(1절). 아그립바 왕은 유대인의 종교와 풍속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사건에 휘말려 든 것이고 이 점을 아그립바 왕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3절).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29절).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에 빛진 자로 여기고 살았습니다(롬 1:14). 그는 때와 장소, 게다가 어떤 성과보다도 단순히 ‘해야 하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딤후 4:2). 바울의 인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역경과 곤경이든 승리와 형통이든,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과 주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행 26:29)

Paul replied, “Short time or long—I pray God that not only you but all who are listening to me today may become what I am, except for these chains.” (Ac. 26:29)

사도행전 26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14절) : 발을 가는 소를 가시채로 때릴 때 소가 뒷발질을 하여 도리어 그 가시에 찔릴 뿐임을 뜻한다. 이는 헬라 세계에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려웠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각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사울 자신에게 더욱 괴로운 일이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시순절기(2.13~3.30)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사도행전 27장
찬송가 546장

묵상노트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고독과 실패가 그 앞에 포효하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죽음의 올가미가 그의 목을 죄어 오고 있으며 사망의 늪이 그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결코 희망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만약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늘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번복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종려주일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복음 전파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원합니다.

•미행(8절) :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다. 항만에 작은 섬들이 있어 계절창으로부터 배들을 보호해 주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위치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5)
So keep up your courage,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Ac. 27:25)

기도제목

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승리

21

목요일

사도행전의 전체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행 1:3).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조심스럽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로마로 압송된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복음에 매인 삶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늘 부담감과 빛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에 매여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마음이 강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믿고 복음 전도를 믿음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 인간적 욕심에 휘둘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인간적 전도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성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는 결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이루시며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찬송가 148장

묵상노트

• 열병(8절) : 엘리데와 지브랄타 등의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었던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을 가리킨다. 엘리데의 열병에 걸릴 경우 그 고통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고생하였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 28:31)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Ac. 28:31)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하게 증거케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욥기 22장
찬송가 140장

묵상노트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책망하시지 않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형제와 악한 자들에게 행한 욥의 악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1~11절). 그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심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며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른다고 비난합니다(12~15절). 또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으며(16~18절), 의인과 죄 없는 자는 기뻐하고 악인은 완전히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하며(19~26절), 욥이 스스로 교만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27~30절)

그의 충고는 훌륭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욥이 악인이며 욥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라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욥이 의롭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욥 1:1), 욥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욥 19:25~27). 엘리바스의 이런 착각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 받지 않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 교사의 팔(9절) : 교사들이 의지하던 모든 도움과 후원을 말한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욥 22:3)

If you return to the Almighty, you will be restored; If you remove wickedness far from your tent.(Job. 22:23)

기도제목

① 세상의 유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23

토요일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변론하기를 원합니다(1~4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 확신하지만(5~7절), 어느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탄식합니다(8~9절).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 이후 순금과 같은 자신을 증명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랐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10~12절). 욥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13~14절).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능자가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이지 자신에게 닥친 어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15~17절).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만큼 비참한 상황도 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의 대적들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할 때였습니다(시 3:2).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욥이지만 그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이 고난이 지나면 순금과 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이후의 축복을 기대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욥이 원하는 것은 고난 이후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Job. 23:10)

욥기 23장

찬송가 141장

묵상노트

• **처소(3절)** : 하나님의 법정이나 심판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좌를 의미할 수도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좁은 길을 걸으며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②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나는 복음을 알지 못했다

전도지를 들고 현지인의 집으로 갔다. 많은 현지인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외워 간 전도 언어를 말하며 전도지를 하나하나 나눠 드렸다. 아무도 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듯, 들은 체 만 체하며 뚱한 표정이었다.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루 종일 그냥 준비한 전도지만 드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시간들은 뭐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라며, 이렇게 듣지도 않고 모른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오만가지 생각을 하며 속상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성령의 도성

그러나 주님은 나를 깨뜨리셨다. 그들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지 않고 전하고 있었다. 전도하는 내내 나에게 주시는 복음. 내가 복음으로 죽어야 동말레이시아의 영혼들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 있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었다. 나는 복음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교회 강단에서, 주일 예배에서, 청년부에서 선포되던 복음이 귓가에는 들렸지만 내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도 다른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 죽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생명이 살았듯이 나 역시 내가 죽음으로 주위에 생명이 살아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함을 알게 해 주셨다.

이지영(청년1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4 주일

25 월요일

☐ 읽기 24장

26 화요일

☐ 읽기 25장

27 수요일

☐ 읽기 26장

28 목요일

☐ 읽기 27장

29 금요일

☐ 읽기 28장

30 토요일

☐ 읽기 29장

4

승리의 입성

Triumphal Entry

| 초점 |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총현찬양곡집 종려나무

| 본문 | 요한복음 12:12~19

¹²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¹³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¹⁴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¹⁵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¹⁶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¹⁷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¹⁸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¹⁹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도 다 하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복음서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를 모두 읽은 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8~44, 요한복음 12:12~19)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종종 겉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인생의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 종려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교회의 수많은 특별한 절기들과 함께 수 세기에 걸쳐 지켜지고 있지만, 이날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죽음을 피할 목적으로 행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4:17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시는 왕국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 때에 주님의 왕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 누가복음 17:20~21,24, 마태복음 25:31~32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재림 시에는 온 세상을 향하여 실제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스스로를 넘겨주시려던 그 때, 부활 전 그 주일날에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입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결국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 당해야 하는 어린 양이요 앞으로 오실 왕으로서 자신을 넘겨주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 12:12~13

제자들을 포함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참된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해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던 무리들이 며칠 후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주님을 판결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마 27:15~17 ; 행 2:22~23).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요 1:29

요 12:27

예수님은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 영접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예수님은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눅 19:10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다 하셨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주님께 의해 시작되고 계획되었으며 실행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 성경이 예언한 것을 알고 계셨으며, 엄청난 증오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속 9:9~11)?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참된 메시아이시며,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때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도 주님의 친구들과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들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따르겠지만, 원수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후 1:6~10

완전한 능력이 나귀를 탄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되었고,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초라하게 보였지만, 영적 능력의 임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들을 보며 초라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분석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빈 칸을 채우며, 정리해 보십시오.

-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약속된 이심을 인정하는 날이다.
-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로 가셨음을 기억하게 해 준다.
-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도 내일 참 제자들이 아니었음이 밝혀질 수 있다는 슬픈 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처럼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고, 내일은 주님을 삶에서 몰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따르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소서.
- ②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소서.



가사 우체국 등 읍내나

52

가사

가사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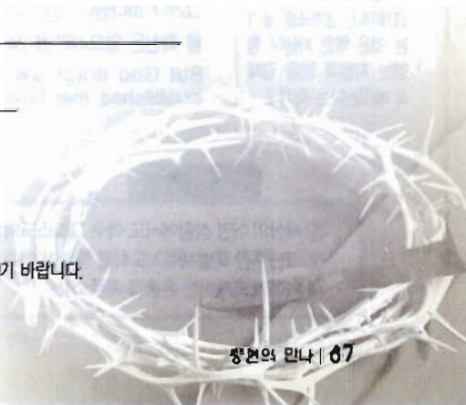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욥기 24장
찬송가 143장

묵상노트

욥은 땅과 양을 도둑질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악한 자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1~4절).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하고 악한 자들이 벌거벗고 굶주리며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상을 보시지 않는다고 욥은 원망합니다(5~12절). 그러나 욥은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불의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3~20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끌어내실 것이고 그들이 잠깐 동안 평안하고 높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며, 자신의 말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21~25절).

욥은 악한 자들에 의해 악한 자들이 억압받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잠잠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결국에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 없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세상의 어떤 핍박과 미혹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 경계표(2절) : 돌이나 바위 등으로 표시한 땅의 경계이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악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모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욥 24:22)

But God drags away the mighty by his power; though they become established, they have no assurance of life. (Job. 24:22)

기도제목

- 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소서.
- ②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26

화요일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화평을 베푸시며 군대를 계수할 수조차 없고 모든 곳에 광명을 베푸시는 분이라 말합니다(1~3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거나 깨끗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는 달이나 별도 빛나지 않는데, 하물며 구더기나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4~6절).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매우 커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세 친구들 중 빌닷의 말로 세 친구들의 주장은 끝을 맺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셨고, 낮고 천한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말을 끝냅니다. 빌닷의 주장처럼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알기알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새롭게 됩니다. 회개한 자들은 다시 태어나며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년을 지내며 스스로를 의롭다 말하는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25장

찬송가 146장

묵상노트

그러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욥 25:4)
How then can a man be righteous before God? How can one born of woman be pure?(Job. 25:4)

• 구더기, 벌레(6절) :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성을 강조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요기 26장

찬송가 151장

묵상노트

요은 빌닷의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혜도 지식도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라고 비난하며(1~4절), 하나님의 통치는 죽은 자들이 있는 스올과 물 밑과 땅과 허공 어디에도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5~7절). 그는 하나님께서는 물을 구름에 싸고 보름달을 가리고 구름을 그 위에 퍼시며 빛과 어둠이 끝나는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고 그의 꾸짖음에 하늘 기둥이 놀라 흔들리며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라합을 깨뜨리시고 하늘을 맑게 하시고 뱀을 무찌르신다고 선언합니다(8~13절).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섭리의 일 부분에 불과할 뿐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14절).

요은 역시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셔서 만물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단편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극도로 발달된 현대과학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이해할 뿐입니다. 인생이 부단히 노력하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며 세상의 모든 힘을 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 앞에 다가온 환경과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 라합(12절) : 바다 괴물 또는 용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을 의미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26:14)

And these are but the outer fringe of his works; how faint the whisper we hear of him! Who then can understand the thunder of his power?(Job. 26:14)

기도제목

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낙망하지 않는 믿음

28

목요일

욥은 자신의 정당함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자신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세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2~6절). 욥은 자신의 원수가 악인과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이익을 얻었으나 희망이 없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7~12절).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유가 없고 자신의 정당성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자신의 항변에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잠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딸을 고치려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이로처럼(막 5:21~43) 심지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득세하고 죄악 가운데서 삶의 고난이 심해 질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기 27장

찬송가 149장

묵상노트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욥 27:8)
For what hope has the godless when he is cut off, when God takes away his life?(Job. 27:8)

• 파수꾼의 초막(18절) : 파수꾼이 임시로 만든 가엾고 악한 오두막.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도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사순절기(2.13~3.30)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요기 28장
찬송가 147장

묵상노트

은과 금이나 철과 동은 각각 얻는 곳이 있습니다(1~2절).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둠 속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여 외딴 곳에서 갱도를 뚫고 매달립니다(3~4절).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나 깊은 물과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값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5~19절).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와 멸망과 사망조차도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20~22절).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십니다. 땅과 하늘을 살피시고 바람과 물의 양을 정하시고 비와 비구름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3~28절).

요은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시를 노래합니다. 사람은 깊은 지하에서 보화를 찾아내지만 지혜는 깊은 광산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통찰을 이 시를 통해 주장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악을 떠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한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이룰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죽음의 사슬을 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게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원토록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 깊은 물(14절) : 깊은 지하에 있는 물의 원천으로 신의 뿌리(9절)와 같이 아주 깊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요 28:28)

And he said to man, "The fear of the Lord--that is wisdom, and to shun evil is understanding." (Job. 28:28)

기도제목

-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게 하소서. ②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과 관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30

토요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소원합니다(1~3절).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며 그의 젊은이들이 그를 둘러 있었고 젖과 기름이 풍성했습니다(4~6절). 그 때에 욥은 성문과 거리에서 판결하였고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유지들과 지도자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7~10절). 욥은 의롭게 행했습니다(11~17절). 그래서 그는 장수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뿌리가 물로 내려가고 밤 이슬을 맞는 나무처럼 든든히 설 것이고, 새로운 영광과 힘을 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18~20절). 이전에 무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욥을 기다렸으며 욥은 그들의 의지가 되고 길을 택하여 주는 으뜸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21~25절).

욥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힘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에게 있었던 부와 명예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요와 명예도 가난과 수치와 고난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 43:1). 예수님의 보혈로 맺가를 치르고 산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나를 거둬나게 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9장

찬송가 160장

묵상노트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욥 29:2)

How I long for the months gone by, for the days when God watched over me.(Job. 29:2)

•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대(4절) : 문자적으로는 ‘포사가 내 장막 곁에 있었다’이다.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서 잘나한 천국였다’는 의미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새 십자가 vs 갈보리 십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십자가가 복음주의 진영에 슬며시 생겨났다. 이 새 십자가는 갈보리 십자가와 비슷하지만, 실상 다르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 갈보리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 십자가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생긴 교만한 인류를 끝장냈다. 하지만 새 십자가는 인류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친한 친구가 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철학이 바로 이 새 십자가에서 나왔다. 새 십자가는 아담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가한다. 그의 인생관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독주를 마시는 것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종교 영화를 보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방법이 조금 고상해졌다고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동기가 변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새 십자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도 방법을 권장한다. 복음전도자는 이제 더 이상 “새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옛 삶을 버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새 삶이 과거의 삶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는 전하면서 그 차이점을 말하지는 않는다.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는 “기독교는 이제 달갑지 않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줍니다. 다만 우리 것이 좀 더 고상하지요”라고 말한다. 새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않고 단지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새 십자가는 죄인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그가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새 십자가는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한다. 이 기적인 사람에게 “와서 주(主) 안에서 네 자량을 늘어 놓아라”라고 말한다. 짜릿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짜릿한 맛을 보라”라고 말한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는
변질된 새 십자가인가, 갈보리 십자가인가?

AW, 토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1 주일

1 월요일 ☐ 로마서 1장2 화요일 ☐ 로마서 2장3 수요일 ☐ 로마서 3장4 목요일 ☐ 로마서 4장5 금요일 ☐ 로마서 5장6 토요일 ☐ 로마서 6장

5

부활의 날

Resurrection Day

| 초점 |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문 | 요한복음 20:19~23

- ⁽¹⁹⁾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²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²¹⁾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²²⁾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고, 그 뒤 무덤가에서 다른 여인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도마를 제외한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모든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에 관한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마 28:9, 눅 24:34~35, 요 20:16~19, 26)

우리는 이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열한 명의 제자들을 방문하시기 바로 전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들과 말씀들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걷고 이야기 나누신 것을 볼 때,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잘 숨기신 것 같습니다.

눅 24:3 _____

요 8:59 _____

요 20:19~20 _____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는지, 또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모든 증언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긴 방 안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였습니다.

※ 예수님이 언급하신 ‘평강’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영광교회 10월 14주 목회교인회

10월 14주 목회교인회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인간의 영혼에 찾아오는 복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05:05 요

요 14:27 _____

요 14:1~3 _____

요 14:19 _____

요 20:21 _____

요 20:26 _____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참된 축복의 평화가 아닌, 잘되고 쉽게 축복 받는 평화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평화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평화를 말씀하신 뒤 즉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 20:20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미쳤거나 술 취했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20:27~28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의 몸의 죽음은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후 5:15

요일 2:2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참된 기쁨이 따라옵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참된 평화와 기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 20:21~22 _____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더 높고 더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저 나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요 14:16~17 _____

요 14:26 _____

요 15:26 _____

성령의 능력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권능을 받았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 20:23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범한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마 6:12

롬 10:9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죄인이며, 모든 죄가 씻기어 완전히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들이 제거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회개한 죄인들의 범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제거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거나 거절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해야 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 부활의 날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 또한 살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밖으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뒤에도 두려워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 제아무리 반대가 강력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결국 그들 모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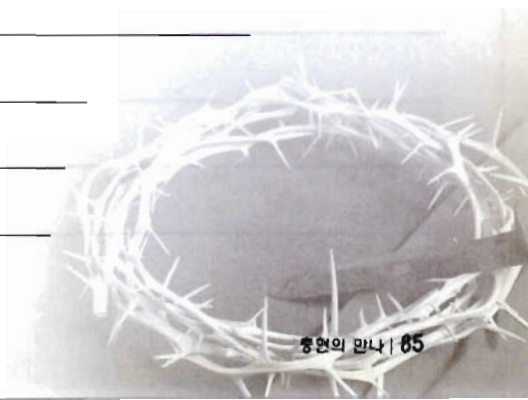
고전 1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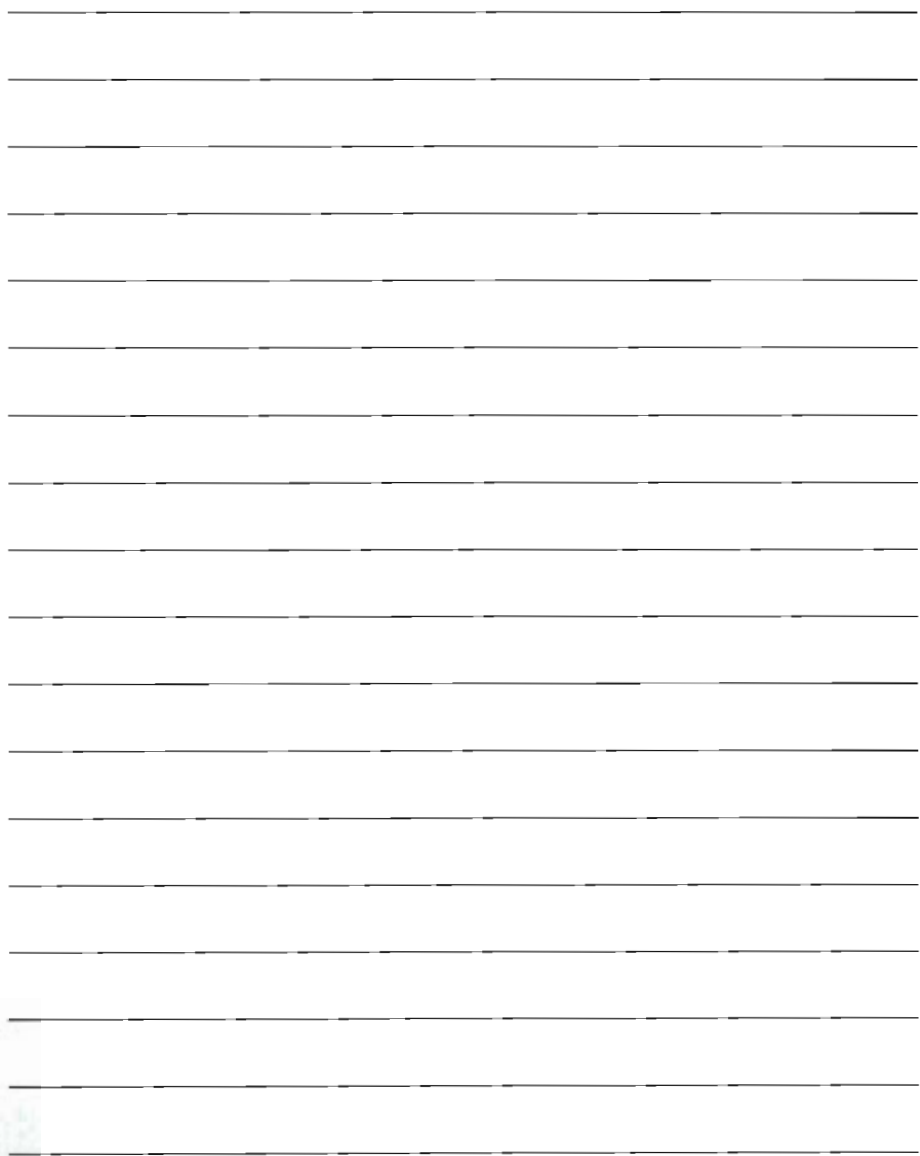
벧전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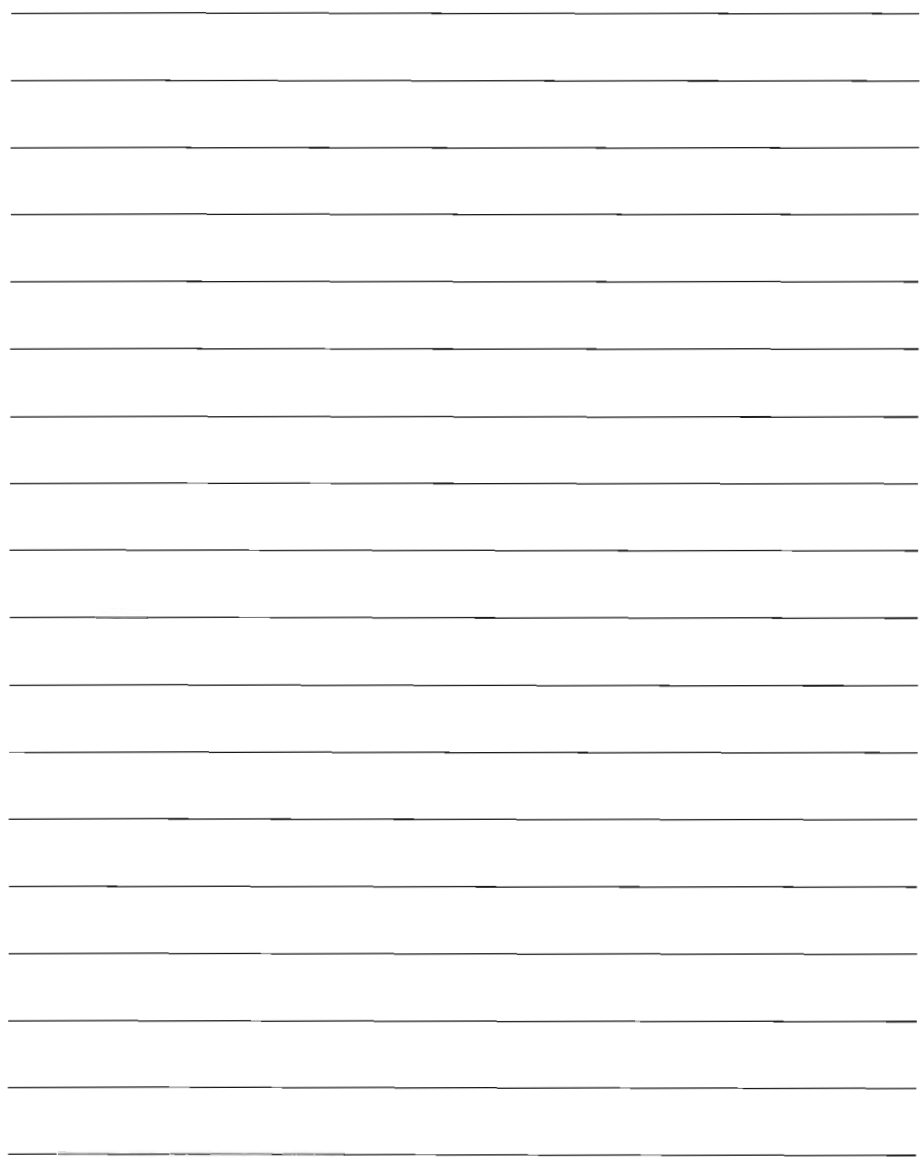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②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3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